

제 12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발표

일시 : 2016 년 7 월 16 일(토) 오후 6:00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주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후원 : 주미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재외동포재단, 예뵘한복



<식순>

1. 개회선언 / 한희영 NAKS 교육
2. 환영사 / 최미영 NAKS 총회장
3. 심사위원 소개
4. 대회
 - 1) 박예은 하와이 지역협의회 (하와이 한인사회 한국학교)
 - 2) 유사랑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볼더 한국학교)
 - 3) 김하리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 4) 이지현 남서부 지역협의회 (알칸사 제자들 한국학교)
 - 5) 이해령 중서부 지역협의회 (하상 한국학교)

5. 시상

- 1)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상

부상 : 예뵘한복 증정

협의회	이름	한국학교	제 목
남서부	이지현	알칸사 제자들	역사를 바꾸는 식품 과학자
뉴잉글랜드	김하리	북부보스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남부	이인빈	사랑의	작지만 큰 희망
동북부	지한별	세종	한결 맛있는 요리로, 한결 행복한 세상을 요리할래요!
동중부	송윤아	남부 뉴저지 통합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는 앵커
미시간	김 별	앤아버	다람이의 겨울준비

북가주	송혜윤	실리콘벨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아나운서
워싱턴	구채원	열린문	어린이들의 하얀 천사
중남부	이시은	렉싱턴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중서부	이혜령	하상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유
콜로라도	유사랑	볼더	사랑이의 동물사랑
하와이	박예은	하와이 한인사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 2) 주미대사상
- 3)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
-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5) 부상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전라북도제공

제 12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학생 원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박예은 / 하와이 지역협의회(하와이 한인사회한국학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와이 한인사회학교에 다니는 6학년 12살 박 예은입니다. 저는 카이무키 중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의 취미는 바이올린을 하는 것이고, 노래 부르면서 춤 추는 것이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리멤버"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은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리멤버라는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서 무죄를 밝혀 가족들이랑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변호사란 직업이 좋아졌어요. 변호사란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빠가 말씀했듯이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만 사랑하는 변호사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법률학교에 다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이의 동물사랑

유사랑 /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볼더 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볼더에서 태어난 유사랑 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동물들과 제 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동물들은 모두 저의 가족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족을 가지게 되었나 궁금해 하실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오랫동안 동물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한글학교가 끝나면
오빠가 일하는 곳을 항상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빠가 동물들을 위해서 했던일들, 예를들어
동물 우리를 청소하고 밥과 물을 챙겨주고 산책 하는것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쌍한 동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픈 동물도 많았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을 보게되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꼭 수의사가 되어 불쌍한 동물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겠다" 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저는 학교공부와 동물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숙제가 많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을땐 처음에 가졌던 "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 줘야지! "
하는 마음을 깜빡!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게을러지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어항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가 귀찮아서 하루~이틀~ 미루던 어느날!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의 귀찮음이 동물들에겐 죽음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책임" 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안좋다고 강아지 산책을 거르고, 친구집에 놀러 간다고 고양이 밥주기를 잊어버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의사! 동물들의 의사가 되는 사람에게 "책임" 이라는 단어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학생, 동물을 사랑하는 저의 책임은 산책, 밥주기, 목욕 시키기 정도지만 수의사로서의 저는 동물들의 생명을 다루는것이 책임 이겠지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제가 할수있는 책임감을 키워 자신감으로 튼튼히 만드는 일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숙제도 많고 방과후 활동도 많아 졌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점점 저에게도 많은 양보와 희생이 따라 오겠지요? 하지만 동물식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배운 몇가지를 이야기 하며 제 꿈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람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 친구는 내 맘을 몰라 주지?"

"왜 저 친구는 나랑 안놀아줄까?"

"왜 저 친구는 나에게 아픈 말을 하지? "

이상하게 사람친구와는 말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틀이 있는데도 생각이 통하는것이 어렵게만 여겨질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친구들은 "교감" 말 그대로 마음을 교환하는 반복 패턴을, 사랑을 담아 전하면 오히려 잘 통하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환자에게 동물들을 통해 병을 고치는 " 에니멀테라피 " 라는 것도 우리는 자주 볼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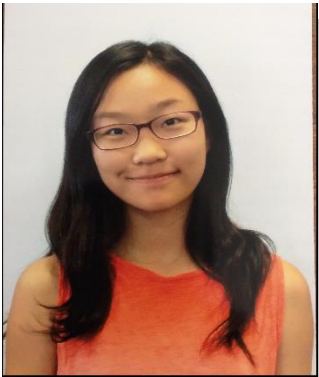
우리는 말이라는 수단이 있지만 오히려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 대신 상대방의 제스처나 표정,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의 크기로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는 동물들을 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친구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꾸준한 관찰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제 꿈은 이런 동물 친구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더 많은것을 배우고 더 많은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얻는 수의사 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고 싶어요.



김하리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의 몸에는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체육 시간에 넘어져 1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그리고 저의 부주의 때문이었죠. 발이 났지 않았을 때는 하루하루가 슬프고 괴로웠어요.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외롭기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피겨스케이팅도 그만둬야했고요 친구들과 오랫동안 같이 뛰어놀지 못해서 친구들과의 우정도 멀어졌어요. 정말 그때는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저는 한 재활치료사 할머니를 만나서 운동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아주 많은 할머니였는데 그 분은 치료를 해주실 때 다른 선생님들처럼 지시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 애리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왜, 이 할머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같은 아이가 벌써 지쳐 있어? 그렇게 쉬고 있으면 나을 것 같니? 더 빨리!" 이러시며 저에 힘을 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직접시범을 보여주시고 중심잡기, 뛰기, 한발로 점프하기.....등을 저랑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밝은 얼굴로 저의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죠. 그때 저는 나도 자라면 아픈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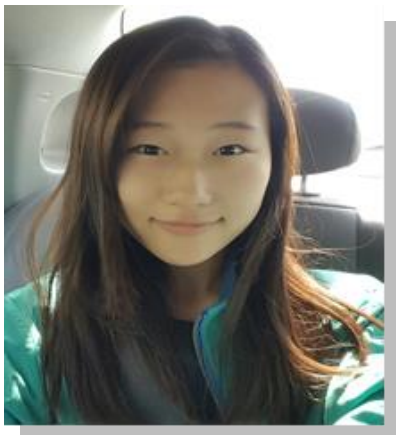
저는 걸스카우트 활동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홈리스 분들을 직접 우리 걸스카우트들과 부모님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미에서 온 친구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영어도 가르쳐주고 숙제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저처럼 몸이 넘어져 육체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를 통해서 봉사와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어른이 되면 무슨 직업을 갖겠다 하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13 살이니까요.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 넘어서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리를 해주는 사회 복지사, 다친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데 도움을 주는 재활치료사, 법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세계 여러 곳에 인권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UN 사무관, 국가 정책을 만들어 많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준비를 위해 저는 저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 번 100 번을 생각해 보아도, 저는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인 저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만, 어디에서던 작은 부분이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제 미래에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은 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역사를 바꾸는 식품 유전 과학자



이지현 남서부 지역협의회 (알칸사 제자들 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알칸소 제자들 한글학교에서 온 미래의 식품 유전 과학자 이지현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왜 굳이 식품 유전 과학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5 학년 때 한 교회에서 보게 된 사진 때문입니다.

그 날 그 교회에서는 아프리카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며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채, 더러운 곳에 누워 있는 많은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은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5 초에 한 명이 지구에서 배고픔으로 죽어간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는 원래

농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닌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7학년 생물을 배울 때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번쩍 생각났습니다. “만약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의 유전자를 우리가 먹는 식물에 넣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아프리카의 기후에서도 맛있는 과일과 야채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날 이후로 저는 식품 유전 과학자가 되어 아프리카와 같은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원래 좋아했던 과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생물과 유전자 공학에 관련된 책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전 과학을 주제로 과학 경시 대회에 나가서 발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대학 연구실에서 과학 기계의 사용법과 연구하는 방법도 배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제 연구실에서 직접 연구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 있기도 한, 일리노이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은 옥수수의 생산량을 4 배 이상 증가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낸 George E Morrow 이라는 교수님께서 계셨던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식품 유전 과학을 공부해서 아프리카와 같은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사를 바꾸는 미래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 일생을 바쳐 연구할 것입니다!

나중에 아프리카에서도 잘 자라는 맛있는 과일과 야채가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제 이름을 찾아봐 주세요. 저는 미래의 식품 유전 과학자 이지현 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유



이혜령 중서부 지역협의회 (하상 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하상한국학교 8 학년에 재학 중인 이 혜령입니다. 8 년 전 처음 한국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의 꿈은 연기자가 되는 거 였어요.

엄마가 자주 읽어주시던 한국 동화책 '산신령과 나무꾼'의 상황극을 아주 잘 연기했었죠. 나무꾼이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때 산신령님이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예요, 아니예요, 제 도끼는 쇠도끼예요." "음... 정직한 나무꾼이로고..." 킨더가든 시절 아가였던 제가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이렇게 연기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저의 꿈은 많이 다양해져 갔죠. 이제 저는 15 년 후의 나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해요. 15 년후에 저는 스물 아홉 살인데요. 지금 열네 살인 제가 스물 아홉 살인 저를 상상하기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가장 예쁜 모습이었을 나의 10 대가 벌써 지나갔다는 것이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막연히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제 차가 생겨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있겠지요. 물론,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의 생활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되겠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건축 디자이너가 되는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의 다운타운은 멋진 건축물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제 이름을 붙인 멋진 건축물을 세우고 하고 싶어요. 1935 년에 Frank Lloyd Wright 가 디자인한 '미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는 Pennsylvania Falling Water House 처럼요.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시카고에 한국인이 디자인한 멋진 건축물이 세워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 그 힘든 일을 제가 꼭 해낼 겁니다. 또 하나는 엄마가 원하시는 작고 예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어요. 예를들면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 집처럼 요. 그 집은 제 이름을 딴 첫 번째 건축물이 될 거예요. " 엄마, 왜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이 좋아?" "집이 너무 크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작은 집에 작은 채소밭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엄마의 그림 같은 집... 제 머릿속에는 이미 엄마 집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아! 하지만 엄마 집에 과자를 붙이진 않을 게예요.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금 한글, 영어 외에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 언어중 프랑스어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프랑스에 배낭 여행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 가서 그곳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고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상상하며 경험과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 담아올 거예요.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나가기 전 저는 용기가 많지 않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역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후로 중학교 졸업식 답사(valedictory)에 도전할 정도로 용기가 커졌답니다. 멋진 꿈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이 용기를 발판으로 꿈을 향해 헤쳐 나아갈 거예요. 언제나 뒤에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지어드릴 집을 상상하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제가 디자인한 건물을 보러 시카고에 놀러 오지 않으실래요? 감사합니다.